



세월호 1년... 맹골수로에 뿌려진 유가족의 눈물

▶관련기사 3·6·7·17·22면



“사랑해
보고싶어
미안해”

세월호 참사 1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진도군 조도면 세월호 침몰사고 현장을 찾은 희생자 가족들이 304명(사망 295명·실종 9명)의 목숨을 앗아간 맹골수를 바라보며 오열하고 있다. /진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종이배 띄우고 국화꽃 추모 ... 애끓는 통곡 바다도 울었다

세월호 유족 참사현장 방문 동행 르포

지현이 아버지는 종이배를 만들어 맹골수로 바다에 띄웠다.

세월호 침몰 197일 만에 발견된 지현이는 자신의 생일날 DNA를 통해 신원이 확인됐다. 아버지는 15일 새벽 2시 안산에서 버스를 타기 전에 지현이에게 전할 편지를 쓴 뒤 종이배를 띄웠다. 편지에는 밤늦게 일터에서 돌아올 때까지 혼자 집에서 기다리던 딸에 대한 안쓰러움과 미안함,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지내라”는 당부가 담겼다.

수첩을 찢어 만든 배는 만들어진 지 21년씩이나 된 낡은 배도 아니었다.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이 나오지도 않는다.

아버지는 투박한 손으로 노란 종이배 4개를 더 만들었다. 바다 44m 아래에서 기다릴 단원고 1반 은화, 2반 다은이, 6반 현철이와 영인이를 태우고 물으로 올라오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종이배는 띄워지자마자 물거품 속으로 사라졌지만 아버지는 출렁이는 바다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15일 오전 9시 진도 팽목항. 세월호 희생자 가족 186명을 태운 한림페리 5호가 출항을 알리는 경적을 세 번 울렸다. 세월호 사고 이후 여객선을 처음 타는 가족들은 승선권과 신분증을 철저히 대조하는 모습에 “달라졌네”라며 변화를 실감했다.

반면, “통로에 있지 말고 1층으로 내려가라”는 안전요원의 말을 들은 한 남성은 “선원 말 잘 들으면 물속에 들어갈 텐데”라며 혼잣말로 되뇌었다. 구명조끼 위치를 알리는 안내방송을 못 미더워하는 반응도 나왔다.

완연한 봄 날씨였다. 바람도 잔잔했다. 1반 수진이 아버지는 차라리 비바람이 불기를 바랐다고 했다. 날씨가 좋으니까 아이들을 구하지 못하는 죄책감이 앞섰기 때문이었다. 그는 “피난처를 방불케 하는 객실에서 숨을 쉴 수가 없어서 갑판 위로 나왔다”고 말했다. 수진은 사고가 난지 1주일만인 4월 22일 3반 정인아와 함께 4층 복도에서 발견됐다. 침몰 당시 두려움에 떨던 수진아와 정인아는 서로 구명조끼를 묶어 놓았다. 그는 바지선을 수십 번 오르고 내리던 지난해 4월과 현재가 다를 것 없다고 말했다.

발 아래 막내딸이 아빠를 부르는 것 같아도 당장 뛰어들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무력감은 아버지를 자책하게 했다.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실종자 수습’ 등 어느 하나 제대로 이뤄내지 못한 자책감도 심했다.

1시간 40분 뒤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

쪽 2.8km 사고 해역에 도달했다. 묵념 뒤 가족들이 흰 국화꽃을 바다에 던졌다.

2학년 8반 정수의 동생 정호(15)는 “엄마, 형 좀 안고 있어”라며 형의 영정 사진을 어머니에게 건넸고 어머니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멈출 수 없었다.

“○○야, 친구 다은이 좀 보내줘”, “조금만 더 기다려줘, 곧 보내줄게.”

배를 타고 가는 내내 말이 없던 가족들은 잠았던 말을 내뱉으며 울먹였다.

갑판 난간에 올라 90까지 세던 소연이 아버지는 “소연이가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잘 사는 모습을 보고 싶어한다고요”라는 주변의 만류에 내려섰다. 앞서 예은이 엄마도 사고 해역에서 감정이 북받쳤지만 동료 유가족들에 의해 가까스로 진정됐다.

유가족들을 태운 배는 30분 동안 사고 해역에 머무르다 침몰 지역을 알리는 부표 주위를 한바퀴 돌고 팽목항으로 뱃머리를 돌렸다. 오전 11시20분 회항을 알리는 경적이 크게 울렸지만 자식·가족들을 떠나 보낸 슬픔을 달지는 못했다.

/진도 맹골수로=백희준기자 bhj@

‘벼랑 끝’ 이완구

성완중 측 “비타500 박스 전달”...여야 자진사퇴요구 확산

성완중 전 경남기업 회장과 친분관계를 부인했던 이완구 국무총리와 성 전 회장의 친분을 보여주는 증언과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특히 이 총리의 3000만원 수수 부인설에도 불구하고, 돈을 전달한 정황을 보여주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어 자진사퇴요구가 확산하고 있다.

15일자 경향신문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보궐선거 당시 성 전 회장이 당시 이완구 후보의 부여 선거사무소에 들렀고, 차에서 ‘비타 500’ 박스를 꺼내 전달했다. 성 전 회장은 이 총리와 1시간 정도 면담한 후 비타 500박스를 놓고 나갔다고 성 전 회장 측 인사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또 성 전 회장 최측근 A씨는 14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2013년 4월4일 오후 2시에 충남도청 개청식에 참석한 뒤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던 이완구 후보의 선거사무소로 이동했다”고 말했다. A씨는 이어 “이 후보 사무실에 처음에는 성 전 회장과 전 충남도의원, 군의원 등 몇 분이 함께 들어갔지만 이 후보가 중간에 다른 분들을 물리고 성 전 회장과 단둘이 독대했다”고 증언했다. 성 전 회장의 또 다른 측근 B씨는 “봉투에 5만원권을 담아 들고 간 것으로 안다”며

“5만원권으로 3000만원을 넣어서인지 봉투가 꽤 두툼했다”고 주장했다.

일부 언론이 보도한 성 전 회장의 비망록에서도 성 전 회장과 이 총리가 2013년 8월부터 지난해까지 20개월간 모두 23차례 만난 기록이 확인됐다. “성 전 회장과 친분이 별로 없다”는 이 총리 해명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이 같은 정황들이 보도되면서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이 총리에 대한 자진사퇴 요구가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친이계 좌장격인 이재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순방차) 출국하는 동안 직무를 대행할 사람이 총리인데, 부패 문제로 수사를 받느냐 마느냐 하는 총리가 대행할 수 있겠느냐”면서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김문수 당 보수혁신위원장도 “100만 공무원의 최고수장으로서는 본인이 진퇴에 대한 결심을 내려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와 관련, 이 총리는 이날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선출직 정치인이 그런 매모나 일방적 한쪽 주장만 갖고 거취 문제를 결정하지 못한다”며 사퇴 요구를 거부했다. / 박지경기자 jkpark@

혁신도시 안착 위해 지역민들 적극 도와야 광주 구도심·문화전당 연계 마케팅 강화를

리더스아카데미 원우세미나

광주·전남의 미래 먹거리(첨단제조업)를 위해서는 나주 혁신도시(빛가람에너지밸리)의 안착과 발전이 선행되어야 하고, 광주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원도심의 공간 마케팅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3기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 제1차 원우세미나’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지난 14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라마다호텔 5층 세미나실에서 ‘광주·전남 발전 이끌 미래 먹거리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지역발전 위한 다양한 제안을 했다. <관련기사 5면>

정진욱 새정치경제여가팀 원장은 “에너지산업이 가장 확실한 미래산업이라는 점에서 나주 혁신도시에 들어선 에너지산업 관련 공기업들의 역할에 따라 광주·전남의 전체 산업지도, 미래성장

지도가 바뀔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혁신도시의 안착과 발전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혁신도시가 지역에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묻기전에 지역이 혁신도시를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생각해 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박홍근 건국사는 “도시 투어리즘 시대에 광주의 공간 마케팅 자원이 없다”면서 “양림동의 경우, 광주를 넘어 한국의 자산이지만 골목길을 밀고 소방도로를 만들고 있는데, 이는 그 가치와 자산을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도시 경쟁력은 기존 도시에 있다. 제대로 된 광주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전략을 세우고 마케팅 차원에서 다듬어야 한다”면서 “행정의 마인드가 제대로 뒷받침되어야 하고, 시민들도 가치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어? 성경이 읽어지네!
4월 3일(금) ~ 매주 금요일
오후2시 ~ 4시 (10주 과정)

구약 과정 개강 062) 605-1112

광신대학교 평생교육원

4·29 재보궐선거 오늘부터 공식 선거전 돌입 ▶4면

**투명한
그러나 매혹적으로 빛나는
헤라 셀 에센스**

아름다움의 경계를 넘나드세요
투명함과 깊이, 순수함과 찬란함 사이를-
피부를 가장 잘 아는, 몸 속 물을 담은 셀 에센스가
당신에게 완전한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CELL ESSENCE
Cell-Bio Fluid Sync
100 ml / 3.3 fl. oz.
100 ml / 3.3 fl. oz.

HERA

●유명백화점이나 아모레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고객상담실: 080-023-5454(수신자요금부담) www.hera.co.kr